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주제:형통 제목:이삭이 형통하게 된 이유

성경:창세기26장12-18절

12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백 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므로

13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14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15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흠으로 메웠더라

16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17 이삭이 그 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18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창26:12-18)

모든 인생에게는 사명이 있다.

우연한 탄생이나, 괜한 탄생은 없다.

모든 가정은 행복하기로 작정된 가정들이다. 또 우리는 그런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리라.

하필이면 가난하고 저주가 켜켜이 쌓인 가정에 태어났다고 생각하는가? 얼마든지 승리하고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으니 걱정 하지 말라.

아브라함을 보라, 그는 저주받은 가정에 태어났다. 그의 조상은 우상을 만드는 자들이었다. 계속해서 저주를 생산해 내는 가정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선택해서 복의 근원을 삼고자 하셨다.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해서 복의 근원을 삼고자 하심을 믿어야 한다.

복과 저주에는 원칙이 있다. 첫째 물려받는다. 둘째 사랑하면 복을, 미워하면 저주를 물려받는다. 셋째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저주는 끊

어진다. 넷째 내가 좋은 밭을 일구면 후손들이 더욱 복을 받는다.

다섯째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도우면 하나님이 내 일을 도우신다.

1. 이삭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았다.

-아브라함도 그랬지만, 이삭도 그랬다.

-홍년이 들어 애굽에 내려가면 좋았지만, 하나님은 가지 말라 하셨다.

-왜냐면 이제는 가나안에 뿌리를 내려야 하기 때문이다.

-나중에 애굽에 가서 수를 불릴 것이다. (야곱때)

-그러나 지금은 가나안에서 뿌리를 내려, 유업을 확장 시켜야 한다.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애굽이 좋지만, 이삭은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고 저주의 땅처럼 보이는 가나안에 머물렀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그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사명을 감당한 것이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좋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2. 이삭은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끝에는

-마침내라는 표현이 중요하다.

-왜 이삭에게는 험난한 삶이 없었겠는가?

-그는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마침내 거부가 된 것이다.

-세상에 쉽게 되는 것은 없다. 최악도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그래서 어떤 사람은 술에 의지한다.)

-꾸준히, 성실하게, 확신을 가지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겸손하게 일하면 마침내 거부가 된다.

3. 이삭은 온유함으로 자신의 부요함을 지켜나갔다.

- 이삭은 거부가 되었으나, 결코 자만하거나 위세를 떨지 않았다.
- 이삭을 시기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방해하였다.
- 블레셋 사람들은 우물을 막는 자요, 이삭은 우물을 파는 자였다.
- 어떻게 보면 결코 당해낼 수 없는 싸움 같지만, 물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크다.
- 또 영적으로 물을 찾는 사람은 점점 더 기능이 좋아진다. 우물을 매우는 기술은 별거 없기 때문이다.

4. 이삭은 유업을 이어받았다.

- 다른 사람들은 유업을 이어받지 않았지만, 이삭은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았기에 하는 일마다 모두 쉬웠다. 실수가 적었고, 확신이 있었다.
- 블레셋 사람들이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새롭게 시작하기 때문이다. 태국이나 방글라데시가 어려운 이유는 항상 홍수가 나면, 다시 새롭게 시작하기 때문이다.
- 유업을 이어받아야 형통하다.
- 이전 사람들의 기술을 이어받지 않고 제대로 배우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다시 처음부터 시작, 이전에 했던 모든 실수를 다시 반복한다.
- 그러나 이어받은 사람은 이전의 모든 실수에서 벗어난다.
- 그래서 아니꼽고 치사해도 배운다.
- 그런데 아버지에게서 배운다면 아니꼽지도, 치사하지도 않아서 잘 배운다.

우리는 모두 이삭을 본받아 형통한 자들이 되자! 아멘.

<찬양예배>

주제:셀모임 제목:허물 덮어주기 말씀:마가복음
11장20-25절

20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21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렸나이다

22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23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24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25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막 11:20-25)

-셀 구호 외치기

-별명 소개하기

-이번 주 점수 발표하기

-각 셀 리더는 애매한 것을 서로 정하고, 서로 정하지 못하면 교역자에게 가져오십시오.

-도전하는 셀이 있으면 상금을 물어두고 갑니다.

-셀 액션(허물 덮어주기); 셀 리더가 자신의 허물이나 단점을 소개하고 구성원들은 다독이며 괜찮아, 내가 도와 주겠습니다. (액션을 개발해 오기)

-다음 주 숙제 ; +굳히기.

20.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대신 받은 이야기

- 열매없는 율법주의자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저주.
- 그 결국은 망하게 되리라는 계시적 사건.
- 무화과 나무가 대신해서 저주를 담당함. 허물을 덮어 주는 것은 자백하고 시인하여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청할 때 가능해 짐.
- 그렇지 아니하면 결국은 진노 아래에 거하게 됨.
- 그러나 시간을 유보하여 그가 깨우치는데 도움을 베풀 수는 있음.
- 그가 깨우칠 때까지 그를 공격하지 않고, 그 주변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공격하는 것이 지혜가 됨.
- 그가 더 심한 죄에 빠지지 않게 도우라.
- 그가 죄로 인한 저주가 무서움을 일깨우도록 도우라.
- 최선이 아니더라도 차선을 유지하도록 도우라.
- 최선을 유지하지 않더라도 그가 인격적으로 모독을 당하여 죄에 완전히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은 햇김이라도 죄를 짓는다.)

22. 하나님을 믿으라

-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라.
-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라.
- 죄악이 커도 하나님은 더 크심을 믿으라.
- 우리가 죄에 민감해야 하는 이유는 그 죄의 형벌이 크기 때문이지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다.
- 우리가 죄의 관영함을 바라보는 이유는 하나님의 빛의 필요성을 절감하기 위함이니 죄가 얼마나 위대한가에 대해 감탄하기 위함이 아니다.
-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아니하면 그는 죄에 굴복하게 되거나 죄에 대해 자포자기 하게 된다.

24.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 죄가 사라지도록 구하자.

- 죄를 이길 수 있는 선함이 무엇인지를 구하자.
-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게 해 달라고 구하자.

25. 허물을 용서하자.

-왜냐면 나도 허물이 있는 자이기 때문이다.

-지금 죄를 짓고 있는데 용서해 달라는 뜻이 아니라, 과거의 죄를 뒤우치고 있으니, 그로 인한 부끄러움과 저주를 덮어달라는 뜻이다.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처럼 동정하고 돌파를 위해서 함께 힘을 모으자는 뜻이다.